

통신3사 CEO 국감 줄소환… 해킹·보안체계 전면 점검

내일 과방위 국정감사

보안 적정성·대응체계 허점 점검
사고 경위·방지책 집중 추궁 예고
요금 독과점 등 민생 이슈도 주목

오는 21일 통신 3사 수장들이 참석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의 화두는 '보안'이 될 전망이다. 잇따른 통신사 해킹과 공공 전산망 마비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국회가 민간·공공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회는 오는 21일 SK텔레콤 유영상 사장, KT 김영섭 사장,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최근 보안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통신3사 수장들이다.

SK텔레콤은 4월 230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로 거센 비판을 받았고, KT는 8월 초소형기지국(웹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보안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LG유플러스 역시 내부 서버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유출의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혹이 제기돼 진화에 나섰다.

과방위는 통신사별 보안 거버넌스의 적정성과 정부 대응 체계의 허점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해킹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직권조사 권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통신 3사 역시 향후 5년간 7000억~1조원 규모의 보안 투자 계획을 내놔다.

다만 지난 13~14일 진행된 초기 국감은 기대에 비해 '미지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통령 의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 등 정치적 공방이 감사 현안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김영섭 KT 사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정부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해킹 질의는 배달의민족·롯데카드 등 다른 기업 현안에 밀려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이에 21일 열리는 통신3사 CEO 동시 출석 국감이 사실상 '본게임'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통신요금·시장 독과점 등 민생 관련 이슈도 병행해 다룰 계획이다. 과방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전산망 장애와 보안 사고를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민생 영역에서는 통신비가 집중 질의 될 전망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는 10년 전에 비해 20% 올랐고, 국민 부담이 크다"며 제4이동통신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고가요금제 폐지 이후에도 가입자 안내가 부족하다"며 통신사의 소비자 고지 의무를 지적했다.

한편 KT 사장 교체 과정의 공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른다. 과방위는 김영섭 사장 외에도 구현모 전 대표, 윤경림 전 후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외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 네이버와 카카오의 검색·광고 알고리즘, 기업 메시지 상품 정책 등이 질의 대상에 오른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로밍 가입 빨라진다 챗봇에 LLM 도입

LG유플러스는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로밍 챗봇에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로밍 가입 절차가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약 60% 단축됐다.

기존 규칙 기반(룰베이스) 챗봇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된 질문 버튼을 단계별로 선택해야 해 답변 정확도는 높지만 절차가 길고 응답 유연성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 로밍 상품 가입 시 국가와 일정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해야 했다.

LLM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U+ 로밍 AI 챗봇'은 자연어 대화를 인식해 고객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다낭 갈 건데 로밍 어떻게 해?"와 같이 입력하면, 챗봇이 자동으로 국가·기간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고 가입 절차를 안내한다. 고객이 요금제와 시작 시간을 선택한 뒤 가입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로밍 챗봇을 통한 가입 시간은 평균 1분 이내로 줄었으며, 해외 이용 중에도 시차에 상관없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다. 개선 이후 챗봇의 순고객추천지수(NPS)는 5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번 시스템에는 LLM의 응답 품질을 자체 평가·보완하는 '셀프 레그(Self-RAG·자기반성 검색증강생성)' 기술이 적용됐다.

/김서현 기자

MCP 기반 AI 에이전트… 사람-기계 협업 경계 허물다

업무 자동화 넘어 협업 구조 혁신 IITP "균형 잡힌 운용전략이 관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의 결합이 소프트웨어(SW)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넘어, 사람과 AI의 협업 구조를 혁신하며 조직의 디지털 DNA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MCP 기반 AI 에이전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기술과 인적 자원 사이 균형 잡힌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9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이달 공개한 'AI 에이전트와 MCP' 보고서에 따르면, MCP와 AI 에이전트의 활용이 솔루션 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MCP는 AI 에이전트와 외부 서비스, 데이터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토콜이다. 단순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제공함으로써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유지 보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킨다. AI를 위한 '공통 언어' 역할을 하며, AI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AI 챗봇이 구글 드라이브, 업무 협업 톨 슬랙, 디지털 문서 도구 노션 등과 연동하려면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별도로 구현해야 해 시스템이 커질수록 복잡성이 증가하고 비용이 늘었다. 반면 MCP를 적용하면 각 AI 모델은 MCP 클라이언트만, 외부 시스템은 MCP 서버만 구성하면 돼 한 번의 통합으로 모든 연결이 가능해진다.

보고서는 "코딩 에이전트와 MCP의 결합은 단계별로 분리돼 수행되던 복잡한 SW 개발 과정을 하나의 매끄러운 흐름으로 묶어내 여러 작업들을 자동화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최근 많은 기업과 개인 개발자들이 프로젝트 관리, 빌드·배포, 테스트 등 주요 개발 워크플로우

(작업 흐름)를 효율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SW 솔루션 기업 에스-코어는 MCP와 제마니 2.5 프로를 코딩 에이전트 클라인과 결합해 그래픽 디자인 도구 피그마의 사용자 환경(UI) 시안을 개발 코드로 변환하는 워크 플로우를 구현했다.

이전에는 디자이너가 피그마에서 UI를 설계하고 개발자가 이를 해석해 코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지만, MCP가 디자인 메타데이터(속성 정보)를 표준화해 AI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서 디자인과 개발 사이의 연계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 고객 프로젝트에서 개발 기간 단축과 품질 제고 효과가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핀테크 기업 블록이 개발한 오픈 소스 AI 에이전트 구스는 사용자의 자연어 요청을 받아 대화형 세션을 구축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MCP 서버를 통해 응답과 개선을 반복하며 코드

생성·분석·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구스 적용으로 블록에서는 비개발자도 데이터 분석, 자동화 등 다양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신규 프로젝트에서도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과 코드 분석 속도가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보고서는 "MCP 표준 생태계는 AI 에이전트 기술의 개방성과 보편화를 촉진한다"면서 "개발자뿐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 운영자 등 비개발 인력도 자신에게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구성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조직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인 MCP 기반 AI 에이전트 도입에는 전략적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며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업무는 AI 에이전트에 맡기되, 창의적인 설계와 복잡한 의사결정은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

SKT, 국제사회와 책임있는 AI 논의 확대

SK텔레콤은 자사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체계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소개하고, 책임 있는 AI 구현과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인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차호범 SKT CPO는 최근 서울 을지로 본사를 방문한 팀 엔겔하르트 유엔 인권담당관 등에게 지난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와 내부 'AI 거버넌스 포털'을 중심으로 SKT의 AI

윤리·책임 체계를 설명했다.

'T.H.E. AI'는 ▲통신기술 기반의 신뢰(by Telco) ▲인류의 복지 증진(for Humanity) ▲윤리적 가치와 투명성(with Ethics)을 의미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KT가 자체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AI 서비스 전 생애주기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AI 개발 및 활용 방안을 기업과 논의



AI 거버넌스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SK텔레콤 차호범 CPO(좌측)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팀 엔겔하르트(Tim Engelhardt) 인권담당관. /SKT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KT는 'T.H.E. AI' 원칙을 바탕으로 AI 행동규범을 수립해 사규에 반영

하고, 전 구성원이 실천 서약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내부 거버넌스 정착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정재현 CGO 직속으로 AI 거버넌스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스페인 'MWC 2025' 행사에서 GSMA·도이치텔레콤 등 해외 기관과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SKT의 'AI 거버넌스 포털'은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단계별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내부 관리 시스템이다. 평가 결과는 대시보드 형태로 관리돼 서비스 생애주기 전반의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APEC정상회의 기간 무료 셔틀버스 운행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합 교통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공식 협찬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주일간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에 총 12대의 4인승 순환 셔틀버스를 투입한다. 해당 버스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경주시 내 '제2동공원'과 '엑스포공원' 두 개의 순환 노선을 달린다. 별도 이용료는 없으며, 차량 대여비와 기사 숙박비 등 제반 비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액 부담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주시 일대 권역의 지·정체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내비를 통한 교통 안내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차량 자율2부제 시행 및 도로 혼잡 사전 예고 ▲실시간 도로 우회 교통 정보 제공으로 통행량 분산 ▲보문관광단지 방문 차량 주차장 안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